

사무엘상 18장 20-27절 말씀

②

- 20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
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
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 스스로 이르되
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
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
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
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
- 22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
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
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
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
-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
다윗이 이르되
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
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
- 24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
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
- 25 사울이 이르되
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
왕이 아무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
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
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백 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
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
- 26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
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
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
- 27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
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
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
-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